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18 WINTER

VOL.12

SPECIAL COLUMN

2019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NOW

9·13대책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WM지점 돌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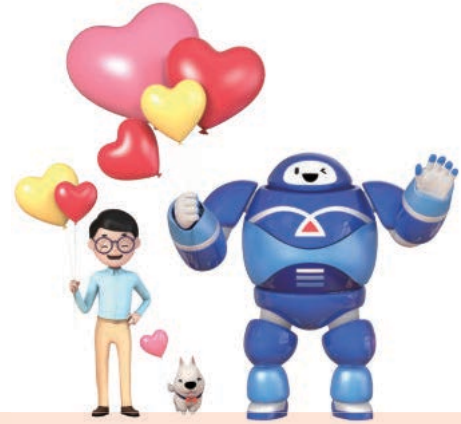
대구WM센터

천안WM센터

광주WM센터

소소한 행복! 확실한 행복!

IBK에서 은퇴준비하고 소확행 누리세요~!!



이벤트 기간 : 2018. 10. 1.(월) ~ 12. 28.(금) (총 3개월간)

※ 당첨자 발표 : '19. 1. 11(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SMS 연락

EVENT 1 소소한 행복!! 「연금모아」로 나의 은퇴준비 현황을 알아보세요~

대 상 이벤트 기간 중 i-ONE뱅크 「모든 금융기관 연금 모아오기」 이용 고객*

* 동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사전 회원가입 필요

경 품 선착순으로 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매
(소진시까지 「모든 금융기관 연금 모아오기」 이용일 익월 제공)

EVENT 2 확실한 행복!! 연금상품 가입하여 은퇴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대 상 이벤트 기간 중 i-ONE뱅크 「연금모아」를 통한 은퇴진단 후 연금상품* 신규 1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 i-ONE로보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개인형IRP(가입자부담금)

경 품 (1등) 10명, 아래 5가지 경품 중 택1 (고객이 선호 아이템을 직접 선택)

LG PrAL(프라엘)	MTG 식스팩드	다이슨 슈퍼소닉	소니 PS4 프로	국민관광상품권 (50만원)

(2등) 25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매

※ 추첨을 통해 총 260명 선정(중복 당첨 고객 제외) ※ 단, 개인형IRP 가입고객 당첨자는 1등 2명, 2등 50명으로 한정

연금모아 접속방법

i-ONE뱅크 > 전체메뉴 > i-ONE ROBO > 평생설계 > [모든 금융기관 모아오기 또는 IBK기업은행 연금 모아오기]

※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고객에 한하여 당행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 해당 이벤트 경품 및 행사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만원 초과 경품의 경우 제세공과금(22%)은 본인부담이며, 30일 이내 경품 미수령 또는 잘못된 고객 정보(핸드폰번호, 주소, 성명) 등의 경우 사전통보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환일이 지난 기프트콘에 대해서는 재발송 되지 않으며, 당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BK고객센터(☎1566-2566) 및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4405호(2018.09.27) 게시기한 : 2018.12.28 출급번호 : EW730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 투자증권은 취득하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해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 기업은행의 분쟁처리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민없이☎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형용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발행일 2018년 12월 7일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기획 WM사업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Tel. 02-729-6423 디자인·제작·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경제·금융 정보 매거진입니다.



SPECIAL COLUMN

- 6 **Special Column ①** 2019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10 **Special Column ②**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방법, 헤지펀드

CONSULTING

- 16 **Now ①** 9·13대책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 20 **Now ②** 상가투자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

LIFE

- 26 **WM센터 돌보기** 대구WM센터
천안WM센터
광주WM센터
- 32 **트렌드로 읽는 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부상하는 부동산 시장
- 36 **테마가 있는 여행** 두 도시의 다른 매력 속으로, 포르투 & 홍콩
- 42 **생활 속 법률 이야기** 황혼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라
- 46 **대중문화 트렌드** 막연한 성공 손에 잡히는 행복!
- 50 **취미 더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클래식 공연
- 54 **Smart Up** 스마트한 시니어를 위한 앱(App) 길라잡이
- 56 **문화가 있는 오늘**
- 58 **이달의 추천 펀드** IBK기업은행이 추천하는 2018년 12월 추천 펀드

1.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행이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대상지표(주가 등)의 움직임은 과거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PECIAL COLUMN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금융 관련 사안들을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6 **Special Column ①**
2019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10 **Special Column ②**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방법,
'헤지펀드'



2019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19년은 경기 둔화 국면이 나타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중심의 자금 유출 우려도 이어지면서 시장은 상승 모멘텀의 부족에 횡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방어적인 가운데 $+α$ 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2019년 글로벌 경제 성장은 올해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중요한 것은 성장 약화의 정도이다. 이를 결정하는 것이 무역갈등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주식시장, +α를 찾아라

2019년 주식시장은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완화 신호로 하락 폭을 만회할 것으로 판단한다.

매크로 측면에서 바라보면, OECD 경기선행지수, GDP 등 주요 지표는 이미 정점에 도달한 뒤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은 2017년에, 선진국은 이보다 조금 늦은 2018년에 고점을 기록한 상황이다. 과거 이러한 지표의 흐름을 봤을 때 성장이 둔화되면서 주식시장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둔화에 대해 더욱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장단기 금리차 역시 설명력이 높은 선행지표로, 이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한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10년물~2년물)는 꾸준히 하락 흐름을 보이며 0에 근접하는 등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뒤 미국 시장이 시차를 두고 고점을 형성한 뒤 약세장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내 시장은 미국 주식시장과 동조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2019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연방준비제도, 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처음 금리를 인상했던 2015년과, 4회 인상이 예상되는 2018년 국내 시장에 하락 압력이 크게 나타났다. 연준에서는 2019년 3회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를 고려해 1회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2019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후 금리 인상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지만 과거 금리 인상이 종료된

2019년은 경기 둔화 국면이 나타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중심의 자금 유출 우려도 이어지면서 시장은 상승 모멘텀의 부족에 횡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방어적인 가운데 +α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2019년 기업이익 기준으로 IT하드웨어, 통신서비스, 미디어/교육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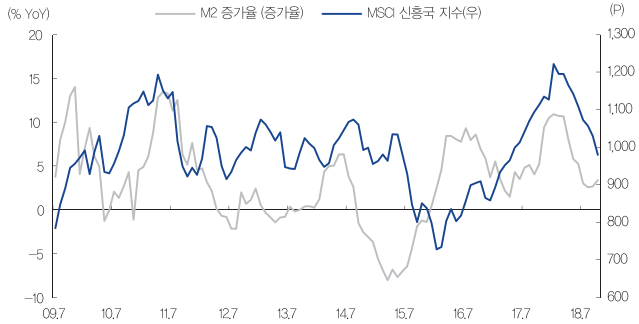
후 경기 둔화와 함께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양호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다만 2019년 견고한 매출액이 KOSPI 하단을 지지하며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M/S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과거 미국발 무역분쟁이 불거졌던 시기에도 수출 규모 및 점유율은 안정적인 흐름이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지만 한국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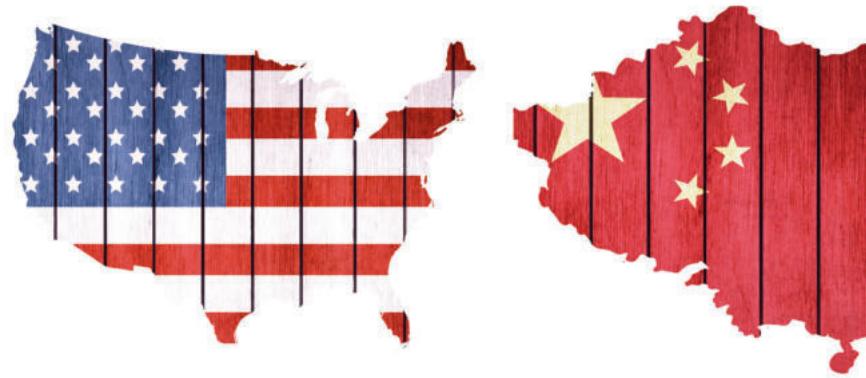
2019년은 경기 둔화 국면이 나타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중심의 자금 유출 우려도 이어지면서 시장은 상승 모멘텀의 부족에 횡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방어적인 가운데 +α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2019년 기업이익 기준으로 IT하드웨어, 통신서비스, 미디어/교육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KOSPI의 기업이익이 둔화되는 가운데 위 업종은 선행 EPS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어 이익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

2019년 스타일 전략은 로우볼과 지속배당을 제시한다.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VKOSPI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로우볼과 지속배당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초과 수익률을 창출했다. 로우볼은 변동성 장세에 강한 모습이며, 지속배당은 이익이 둔화되는 국면과 주가 조정 국면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한다. 2019년에도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되 앞에서 제시한 전략을 참고한다면 +α 수익률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신흥국 지수 하락은 빈번히 발생



주: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의 M2 합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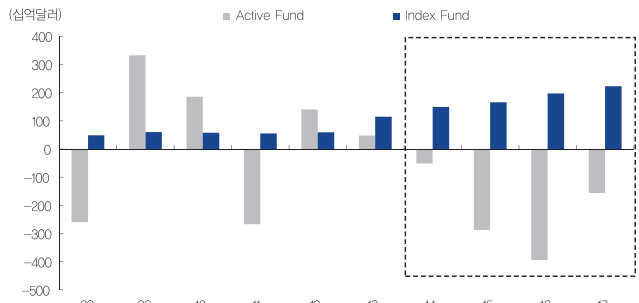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 경제를 보고 투자하자

2019년 글로벌 경제 성장은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중요한 것은 성장 약화의 정도이다. 이를 결정하는 것이 무역갈등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은 내년에도 여타 국가와 비교해 견고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미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던 것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다. 트럼프는 올해 초 법인세율을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기존의 다단계 누진세율에서 21%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개인소득세율은 기존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인하 정책을 단행했다. 이에 힘입어 미국 경제는 2017년 2.2% 성장했는데 올해는 2.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2019년이다. 과거 미국의 감세 정책 효과는 1년 남짓이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미국의 감세 정책 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무역분쟁도 미국의 경상수지를 개선시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지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투자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이미 향후 10년간 총 1.5조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입법추진 개요'를 발표한 바 있다. 아직까지는 인프라투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 감세 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트럼프 정부는 인프라투자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어적 전략 선호 : 글로벌 액티브 펀드는 자본이 순유출됐으나 인덱스 펀드는 자본 순유입



자료: ICI, IBK투자증권

경기 둔화와 변동성 국면에서는 지속배당 및 로우볼 전략이 필요



자료: WiseFn,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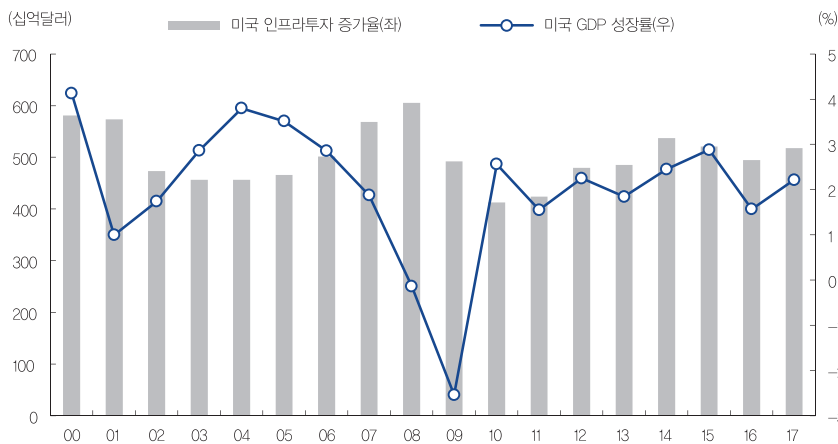
다만 자금조달에 있어 어려움은 예상된다. 10년 간 총 1.5조 달러 인프라투자 금액 중 연방 재정이 2,000억 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 1.3조 달러는 주·지방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중국 경제는 어떻게? 중국 경제 역시 성장률은 약화되었지만 연착륙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성장 모멘텀 약화와 무역분쟁 속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미 재정정책과 통화 완화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내년에도 미중 무역분쟁, 부채문제, 금융시장의 취약성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대규모 외환보유고, 양호한 정부부채 등을 감안했을 때 2019년 중국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6%대 성장률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고 연착륙하는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축은 미국 경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감세 정책 효과 소멸에 따른 성장 약화는 피할 수 없겠지만 예상보다 강한 인프라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미국 경기의 확장국면은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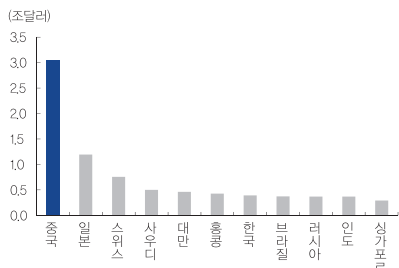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2019년 투자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 일단 내년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고 무역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 경제성장률의 약화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위험자산 수익률이 우려보다는 양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도 계속 엿바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WIN CLASS

과거 미국 경제성장률 약화 시 인프라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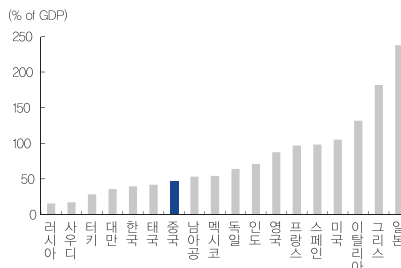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IBK투자증권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 세계 1위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중국 정부부채 많지 않아



자료: IMF, IBK투자증권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방법, ‘헤지펀드’

헤지펀드는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면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하락장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헤지펀드를 소개하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10월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지수는 -13.2%, 코스닥지수는 -20.5%까지 급락하였고 개별종목에 투자했거나 레버리지ETF에 투자한 경우에는 충격이 더 컸을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그동안 거액 자산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헤지펀드’이다. 헤지펀드는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면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하락장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헤지펀드를 소개하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헤지펀드의 최소가입금액을 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2015년 10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억 원(레버리지 200% 초과 시 3억 원)까지 낮아진데다 2017년에는 공모펀드가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반투자자도 부담없이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헤지펀드란 무엇인가

헤지펀드의 정의는 운용 전략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확립적으로 정의하기는 모호한 면이 있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헤지펀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일반투자자에게도 하나의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헤지펀드가 무엇인지 그 특징을 5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헤지펀드의 운용목적은 시장상황과 무관한 절대수익을 추

구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코스피지수가 20%가 상승하던지 아니면 20%가 하락하던지 헤지펀드는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일정한 절대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펀드의 성과는 ‘베타수익+알파수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베타수익은 시장과 연동된 수익이고 알파수익은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펀드와 다르게 헤지펀드의 성과는 알파수익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시장대비 일정한 초과수익인 알파수익 등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헤지펀드는 목표한 절대수익 달성을 위해 공매도, 레버리지, 파생상품 등의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한다. 헤지펀드는 투자계약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한 절대수익 달성을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장 하락이 예상되면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취하고 무위험차익기회가 포착되면 많은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가끔은 헤지펀드의 이러한 공격적인 운용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해서 초기에는 헤지펀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도 했다.

셋째, 헤지펀드는 전통적인 투자자산들과 낮은 상관성을 가진다. 낮은 상관성이라는 것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관련이 낮다(또는 없다)라는 의미이다. 전통적인 투자자산들은 대부분 시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반면, 헤지펀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시장과 ‘무관’하게 절대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통적인 투자자산들이 시장에 등락에 따라 성과가 요동칠 때에도 잘 운용되는 헤지펀드는 이와 상관없이 일정한 절대수익을 달성하기 때문에 당연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헤지펀드는 일반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 보수와 성과보수를 가진다. 그 이유는 일반펀드 성과가 시장 상황에 연동되는 것과 달리 헤지펀드의 성과는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의 역량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헤지펀드는 운용사와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시장대비 초과수익인 알파수익을 위해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절대수익 창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보상이 필요하며 또한 성과가 좋을 때에는 일정비율의 성과보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가 낮은 변동성으로 계속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만 해준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약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관리가 안 되거나 성과가 부진한 펀드라면 당연히 투자자는 떠나고 자연스럽게 청산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도 유명한 펀드매니저나 재야의 투자 고수들이 헤지펀드를 만들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그만큼 운용보수와 성과보수의 매력이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헤지펀드는 사모펀드의 일종이다. 헤지펀드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는 공모가 아닌 사모다. 헤지펀드가 사모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만큼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정보는 제한된 소수에게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헤지펀드에는 현재 기준으로 최대 49명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며 올해 11월 초 금융위가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향후에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하여 99명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두에 언급한 대로 지금은 공모펀드가 재간접 형태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래 표를 통해 헤지펀드를 기존의 일반펀드와 비교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펀드	비교대상	헤지펀드
공모펀드	투자자 모집방식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매수 후 매도	운용전략	공매도, 차입, 파생상품에 투자
불가	차입투자(레버리지)	가능
상대수익률	성과측정	절대수익률
순자산가치기초, 1% 내외	운용보수	순자산가치기초, 2% 내외
없음	성과보수	있음
시장수익률 이상이 목표	수익창출	꾸준한 성과 제공
참여 안 함	경영참여	참여 가능
감독기관	통제	투자자 자율규제

출처 : 미래에셋자산운용

헤지펀드가 절대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용하는 투자전략

Equity Hedge 다양한 계량적 분석 또는 정성적 분석을 통해 주로 주식과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매수/매도 포지션을 구축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전략. 가장 대표적인 세부 투자전략으로는 주식 Long-Short 전략이 있다. 국내 헤지펀드 초기에는 주식 Long-Short을 구축할 때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Long)하고 KOSPI200선물을 매도(Short)하여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여 KOSPI지수가 상승하던 2017년에는 오히려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업종 내 주식 Long-Short 전략’이 인기를 얻고 있다. ‘업종 내 주식 Long-Short 전략’은 동일한 업종 주식 중에 펀드매니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은 매수(Long)하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주식은 매도(Short)하여 시장의 등락과는 무관하게 두 주식의 성과 차이를 수익으로 취하는 전략이다.

Event-Driven 합병, 구조조정, 공개매수, 자사주매입, 부채교환, 유상증자 혹은 그 외 재무구조 조정 등 기업의 비경상적인 이벤트에서 투자기회를 포착하는 투자전략으로 주로 정성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Macro(또는 CTA) Top-Down, Bottom-Up 접근으로 계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식, 채권, 외환, 상품시장의 가격변동을 예측하는 투자전략으로 향후 가격 전망에 주목하며, 개별 주식의 펀더멘털이 아닌 거시경제 지표에 집중하여 포지션을 취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주로 상품 및 통화에 대한 노출을 사용한다.

Relative Value 다양한 펀더멘털, 계량적 분석을 통해 연관성이 입증된 유가증권 사이에서 발생한 밸류에이션 괴리를 이용하여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투자전략으로 주로 채권(Fixed Income)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양적 완화정책으로 채권시장의 가격이 왜곡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전략이다. 변동성(Volatility)에 투자하는 전략도 여기에 속한다.

Multi-Strategy 하나의 투자전략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의 투자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낮추고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으로 분산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좋은 헤지펀드를 선택하는 방법

헤지펀드를 선택할 때는 높은 기대수익률보다는 펀드가 얼마나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목표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일한 투자기간 동안 동일한 투자결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투자기간 동안 성과의 등락, 즉 변동성이 적을수록 더 좋은 헤지펀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헤지펀드 운용사에서는 월별로 펀드의 성과를 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월 꾸준히 성과를 쌓아가는 펀드를 선택한다면 헤지펀드 선택의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헤지펀드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헤지펀드의 특성 등을 보면 헤지펀드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상품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헤지펀드가 원금손실 없이 절대수익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헤지펀드는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투자결과가 결정되며 당연히 과거의 화려한 운용 성과가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 시장의 예측하지 못한 변화와 펀드매니저의 운용 부진이 만나다면 아무리 호황인 시장에서도 헤지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과 무관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반드시 헤지펀드를 투자할 때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분산투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여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배분해야 하며, 위험자산도 투자상품별 또는 투자전략별로 분산해야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큰 실패 없이 꾸준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WIN CLASS



헤지펀드를 선택할 때는
높은 기대수익률보다는 펀드가 얼마나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목표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일한 투자기간 동안 동일한 투자결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투자기간 동안 성과의 등락,
즉 변동성이 적을수록
더 좋은 헤지펀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NSULTING

금융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정보를 알아봅니다.

- 16 **Now ①**
9·13대책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 20 **Now ②**
상가투자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



9·13대책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2018년 9월 13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9·13대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실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로 알아보자.







2017년 8월 2일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후 같은 해 12월 13일 주택임대사업등록에 대한 혜택을 주어 주택임대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임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다주택자들의 계속적인 주택 보유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자 이듬해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9·13대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실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로 알아보자.

9·13대책이 반영된 정부의 세제정책

각종 주택관련 규제대상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조정대상지역 : 주택관련 규제대상지역(2018.8.27. 확대·해제 반영)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전 지역 (25개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기타	세종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세종시, 부산 기장군 일광면

*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8·2대책과 9·13대책은 위 표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과 부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과 부담(9·13대책 반영)

구분	혜택	부담
주택임대 (면적 및 공시가격 제약조건 있음)	① 취득세 감면 ② 재산세 감면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9·13으로 변경) ④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9·13으로 변경) ⑤ 8년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9·13으로 변경) 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감면 (9·13으로 변경) ⑦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⑧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제외	① 소득세 부담 증가 ② 건강보험료 부담 ③ 의무임대기간 등 ④ 미충족 시 과태료 부과

- 혜택 ①, ②는 공시가격 무관하게 85㎡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면적별 감면율 상이) 하며, 9·13대책 발표 이후에도 기존 규정대로 적용함
- 혜택 ③, ④는 9·13대책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적용 불가
- 혜택 ⑤, ⑥은 9·13대책 이후에는 기존의 85㎡이하 기준에 공시가격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이하 규정 추가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실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10년 최대 80%) 적용 요건에 실거주 2년 이상 추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요약(9·13대책 반영)

구분	공시가격 6억(3억) 이하		공시가격 6억(3억)초과	
	85㎡ 이하	85㎡ 초과	85㎡ 이하	85㎡ 초과
종합소득세 감면	○	X	X	X
8년 이상 임대 장특공제 70%	○	X	○	X
종합소득세 100% 감면	○	X	○	X
종합소득세 종과배제	○	X	X	X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X	X	X
취득세 감면	○	X	○	X
재산세 감면	○	X	○	X

■ 9·13대책 발표 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9·13대책이 반영된 세금계산 사례

① 다세대주택 신규투자인 검토자의 경우

본인 소유 거주주택 1채 보유 시[시세 30억 원(공시가격 16억 원)]
 2018년 9월 14일 이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세부담 비교

- 토지 취득가액 30억 원, 총 19세대(세대 당 건축비 1억 원) 규모 60㎡이하 주택 19세대 전부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
- 세대 당 예상공시가격 3억 원, 8년 임대 후 양도 시 세대 당 예상 양도가액 5억 원

구분	9·13대책 발표 후	9·13대책 발표 전
취득세	85%감면	85%감면
재산세	75%감면	75%감면
양도소득세 (19세대 전부 양도 시)	양도가액 95억, 취득가액 59억 원, 양도차익 40억 원 과세표준 12억 원(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70%-8년 이상 임대) 적용세율 62%(19세대 양도 시 3주택 이상자로 세율 20%p 추가) 양도소득세 7억 원	적용세율 42%(임대주택 종과세 배제로 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5억 원
종합부동산세 (거주주택+ 임대 19세대)	공시가격 합계 : 73억 원 중부세 : 1억 원	공시가격 합계 : 16억 원 중부세 : 7백만 원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세 75% 감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세 75% 감면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의 양도세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 원 이상) 1주택자는 거주기간 무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개정) 2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 적용
2년 미만 거주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간 최대 30%) 적용

[사례] 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4억 원, 보유기간 17년,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 ①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8.8억 × (1-80%)] × 35% = 4,670만 원
- ② 2년 이상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8.8억 × (1-30%)] × 42% = 2억 2,332만 원

③ 양도소득세 100% 감면(10년 임대 2018년 12월 30일 취득)

- 종과대상인 경우 감면세액은 증가하나 농어촌특별세 증가
- 면적 85㎡이하 조건에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이하 요건 추가 (2018.12.31.까지 계약체결분)

[사례] 양도차익 7억 원(양도가액 10억 원, 취득가액 3억 원), 보유기간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 후 양도 시	
공시가격 6억 1천만 원	[7억 원 × (1-20%)] × 57.5% = 2억 8,138만 원
공시가격 5억 9천만 원	[7억 원 × (1-20%)] × 57.5% = 2억 8,138만 원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 2억 5,580만 원(소득세만) 농어촌특별세액 : 감면세액 × 20% = 5,116만 원

사례로 본 9·13대책의 의미

상기 사례로 알아본 바와 같이 정부의 9·13대책은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 시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신규 주택 수요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소개한 세제상의 혜택 축소 외에도 기존 주택 소유자의 담보 대출 등을 옥죄는 정책도 실시하게 되어 정부의 주택보유자에 대한 주택 수요를 줄이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현재 정책 하에서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서는 실수요를 위한 대체 취득 또는 기존 주택을 무주택자 등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여 소유권을 분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WIN CLASS

상가투자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



얼마 전,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주택 매매가격은 1.1%, 전세가격은 1.5% 동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근래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가격이 보합 및 가격하락이 시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는 일반경기 흐름에 민감하고 주택에 비해 개별적 특성이 남다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과거 상가는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나무랄 데 없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여겨져왔다.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거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가의 투자관심은 변함없이 보였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년층들의 폭넓은 관심과 거의 10년 이상 지속된 저금리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 및 전월세 상한한도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데다 최저임금 인상, 경기불안 등 가격변수로 이전보다는 투자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가의 투자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수익률이다. 통상 상가는 장사를 하기 위한 곳이므로 장사가 잘될 만한 곳(위치)이 상가로서의 가치(임대료)를 높여준다. 따라서 전체 상권의 흡인력(유동 인구)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 특히 과열 분위기에 휩쓸려 환금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리 상가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가격에 구입

하여야 하며 현금이 필요할 때 유동화 할 수 있고 다소의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 중인 상가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공사기간 및 상권이 형성되려면 최소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여건보다는 상가 주변의 미래변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때 해당 관청이나 지역 중개업소에 들러 주변 개발계획, 교통흐름 변수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좋은 조건의 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반 아파트처럼 정보습득이 쉽지 않은데다 구매자들의 발품 역시 아파트 매입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임차인의 시각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듯 수익형 부동산은 일반경기 상황과 입지, 업종 등 개별적 조건에 따라 수익률 정도가 다르므로 투자를 결정하기 전,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왕이면 모르는 곳 보다는 잘 아는 지역을 선택하고 상가 투자 시 장점과 단점,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상가의 유형별 종류와 특징

단지 내 상가

독점상권 보장으로 고정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매입비용이 다른 상가유형에 비해 높지 않아서 퇴직자나 주부 등 임대소득자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꾸준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보다 높은 월세가 보장된다는 점 때문. 투자적격 규모는 1,000가구일 경우 상가 연면적이 300평 이내면 된다. 단지 내 상가는 중소형 평수가 많은 아파트에 자리를 잡아야 수익성이 좋다. 대형 평수 입주자들은 단지 내 상가보다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근린상가

택지개발지구 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진입로 주변에 형성된 근린생활시설 밀집 상권을 말한다. 입지여건이나 배후인구에 따라 매출과 임대료가 다르며 개발계획이나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일수록 근린상가의 투자가치가 크다. 초기 수익률은 단지 내 상가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상권이 안정되고 땅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높은 내재가치 때문에 불경기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주거를 겸용할 수 있어서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상가이다. 가급적 큰길 주변 상가가 경쟁력이 있으며 퇴근인구가 많은 방향의 상가가 고객 흡인력이 높은 편이다.

테마 상가(쇼핑몰)

테마 상가는 상권에 따라 거액의 권리금을 노릴 수 있고 또한 높은 월세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상권이 죽을 경우 투자원금을 날릴 수도 있어 위험관리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매입 전에 철저한 입지분석과 함께 시행사의 마케팅 능력과 경험,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서울 광화문, 여의도 등 관공서나 사무실 밀집지역 상가는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주말에 가족단위로 찾기 쉽거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유흥가, 대규모 주택단지, 그리고 관광지 주변이 고객확보 면에서 유리하다.



민자역사 주변 복합상가

철도공사와 민간투자자가 주식회사를 만들어 진행하는 민자역사 사업에는 백화점이나 의류, 잡화, 음식점 등이 함께 들어서는 게 일반적이다. 역사 안에 들어서는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형성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왕십리 역사에 가보면 10~50대 연령의 유동인구가 넘친다. 당장은 민자역사가 신축되는 지역이 그다지 매력적인 상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골목상권

강남구 신사동, 마포구 연남동, 망원동, 합정동, 송파구 석촌동, 성동구 성수동, 용산구 이태원동, 한강로 등은 각각 가로수길, 망리단길, 경리단길, 송리단길, 용리단길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골목상권의 특징은 이미 상권형성이 되고 난 뒤에는 주변으로 상권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골목상권은 지역마다 맛집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2~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높은 가격으로 지가상승을 하고 비교적 자주 업종이 바뀌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나 단골이 없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모든 사물(事物)과 그 조건은 변한다. 부동산시장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올 한해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투자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는 결국 투자자의 몫이다. 그러나 다양한 투자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이고 객관적인 몇 가지 기본 투자원칙은 항상 불변한다. 상가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투자목적과 기간, 투자비용과 금리, 시장 모니터링, 정책변수, 지역 및 개별요인 등을 꼼꼼히 고려한 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WIN CLASS

LIFE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여행·인문 관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26 WM센터 돌보기
대구WM센터
천안WM센터
광주WM센터
- 32 트렌드로 읽는 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부상하는 부동산 시장
- 36 테마가 있는 여행
두 도시의 다른 매력 속으로,
포르투 & 홍콩
- 42 생활 속 법률 이야기
황혼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라
- 46 대중문화 트렌드
막연한 성공 손에 잡히는 행복!
- 50 취미 더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클래식 공연
- 54 Smart Up
스마트한 시니어를 위한 앱(App) 길라잡이
- 56 문화가 있는 오늘
- 58 이달의 추천 펀드
IBK기업은행이 추천하는
2018년 12월 추천 펀드





대구지역 자산관리의 사랑방으로

믿음, 신뢰, 혁신. 대구WM센터를 표현하는 단어다.
금융기관들이 몰려있어 대구의 금융중심지로 불리는 범어동에 IBK기업은행의
13번째 복합점포로 지난 7월 9일 개점한 대구WM센터는 천천히,
그러나 우직한 행보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대구
WM센터



대구·경북지역의 문제해결사를 지향하다

금융·행정·의료 등 대구의 중추 기능이 밀집된 랜드마크의 중심에 위치한 대구WM센터는 그 분위기에 걸맞게 활력이 넘쳐났다. 그리고 이 활력은 직원들 스스로가 가진 확신과 믿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었다.

“대구·경북지역은 특히 지역의 충성고객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은행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기업 고객을 발굴해 증권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요. 개인에 대한 자산관리 상품뿐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상품은 우리 IBK기업은행 WM센터가 전문가

라는 인식을 대구·경북 지역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기업고객에게 필요한 것은 비단 대출만이 아니라 상가에 대한 수지분석같은 부동산, 세무 등의 다양한 분야이기에 직원들 역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변성환 센터장의 설명이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점과의 공조는 물론 직접 고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한 분 한 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해드려야 하는 곳이고, 또 고객이 센터에 오실 때 확대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WM센터의 장점인 고객의 니

즈와 상황에 맞춘 집중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는 만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문제해결사’가 되겠다는 것. 특히 대구 WM센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센터 내에 갖춰진 화상회의 시스템이다. 영상 PC를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1:1 맞춤서비스에서 세심한 고객관리를 위한 대구WM센터의 노력이 엿보인다.



고객에게 진심을 전하다

“찰떡궁합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대구WM센터 직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점 전 3개월 동안 한 사무실에서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며 지냈기에 직원 간 팀워크와 소통은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객은 직원들의 미소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본다며 항상 즐거움으로 가득한 대구WM센터 직원들이야말로 센터의 자랑이라는 변성환 센터장이 너털웃음을 지었다. 인근 지역 고객들의 편안한 사랑방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대구WM센터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가족적인 분위기일 것이다.

대구WM센터의 전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센터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바로 ‘끊임없는 질문’이다. 고객과 오랜 동반자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장단점은 물론 리스크도 확실하게 파악해 위험성이 있는 상품은 골라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하며 공부한다는 것.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돕고 함께 나아가며 대구·경북지역과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급격히 성장하기보다는 느리더라도 오롯이 한 길을 나아가겠다는 마인드로 무장한 대구WM센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는 그들의 욕심이 앞으로를 기대하게 하는 이유다.

MINI INTERVIEW



변성환 센터장

대구WM센터 초대 센터장으로서 단단한 기반을 닦아놓는 데 힘쓰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센터로 만들 것이며 WM센터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부센터장

고객의 마음이 편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과 진정성을 가진 만남을 위해 어떻게 해야 고객의 마음이 편할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조경희 팀장

다양한 상품을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전문가로서 든든한 평생의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은혜 대리

숲과 나무를 함께 보기 위해 꾸준한 자기관리를 할 것이며, 항상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대구WM센터에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신소연 계장

고객에게 신뢰받고 영양가 있는 직원이 되기 위해 은행상품은 물론 증권상품을 꾸준히 공부해 준비성을 철저히 갖춘 팔방미인 직원이 되겠습니다.

충청지역 자산관리의 허브를 향하여

2018년 10월 8일 충청지역 최초의
자산관리 전문센터로 발걸음을 내디딘
천안WM센터.
그동안 기다려 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힌
천안WM센터의
주인공들을 만나봤다.

천안
WM센터



최고의 팀워크와 시너지로

IBK기업은행의 14번째 복합점포인 천안WM센터의 개점을 그 누구보다 반긴 이는 다름 아닌 고객이었다. IBK기업은행 직원 5명, IBK투자증권 직원 3명이 푹푹 뭉쳐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을 아우르는 넓은 권역을 활동무대로 삼아 그야말로 '발에 땀이 나도록' 땀 흘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대와 믿음 덕분이다.

“천안·아산 지역은 비(非)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매년 1만 명이 상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전국 어디든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미줄 교통망’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

인 도시지요. 특히, 중부권 최대의 산업 도시로서 기업환경이 좋고, 훌륭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천안WM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인 자산가와 CEO 고객은 물론, 법인 고객에게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업형 WM센터’를 지향한다. 기업 자산관리를 비롯하여 IPO 및 각종 세무 상담 서비스 등 관내 기업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유난히 웃음이 넘치는 천안WM센터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를 묻자 ‘소통’이라는 측답이 돌아온다. 어느 조직이

나 마찬가지로, 특히 WM센터는 구조적으로는 안으로는 은행과 증권사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또 밖으로는 관내 영업점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고객의 니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는 곳이 바로 천안 WM센터다.

윤옥경 센터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 천안WM센터 직원들의 팀워크라고 설명한다. “저희 천안WM센터는 구성원 8명 모두가 여성이에요. 서로 비슷한 듯 다른 매력과 개성을 가진 각각의 직원들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지요. 센터를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인데, 그럴수록 더욱더 서로가 열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 흐름과 금융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시로 공유하다 보면, 영업현장에서도 고객의 니즈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팀워크가 점점 정교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 천안WM센터는 이렇게 소통을 영양분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고객을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천안WM센터 직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날은 올해 여름의 가장 더운 날이었다. 그러나 더위를 이기는 뜨거운 열정으로 센터 오픈을 준비했기에 천안WM센터를 위한 직원들의 자부심은 그 누구보다 남다르다.

“진심으로 천안WM센터의 오픈을 기다려주신 고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기대 이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부분들을 모두 세심하게 준비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충청지역 자산관리의 허브가 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힌 천안WM센터. 관내 30여 개 영업점과 협력해 충청지역 곳곳에 있는 고객을 직접 만나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각종 컨설팅과 알찬 세미나가 준비되어있음은 물론이다. 보다 품격있는 공간에서 고객님에게 수준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설렘과 기쁨을 감추지 않던 천안WM센터가 특유의 소통과 열정으로 충청지역의 대표 집포로 우뚝 서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MINI INTERVIEW



윤옥경 센터장
지역의 자산관리 거점이 될 천안WM센터의 초대 센터장 자리를 맡은 것이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저희 천안WM센터를 탄탄하게, 정성껏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윤 부센터장
천안WM센터를 통해 충청지역 자산가 고객님들을 만날 생각에 매우 설렘니다. 고객을 쫓는 은행원이 아닌 고객의 마음을 사고 고객님들이 먼저 찾는 진정한 PB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지연 팀장
PB로서의 첫걸음을 천안WM 센터에서 내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만나서 의논하고 싶은 PB가 되겠습니다.

채슬기 대리
천안WM센터의 처음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해 센터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Passion, Belief, Accuracy를 갖춘 역량 있는 PBA가 되겠습니다.

김설화 계장
역사적으로 기억될 충청 지역 첫 WM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IBK자산관리의 거점이 될 우리 센터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는 PBA가 되겠습니다.

예향[|]藝鄉[|]에서 만나는 고객행복의 가치

예술의 고장, 예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광주WM센터는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편안함을 준다. 지난 10월 26일 개점한 광주WM센터는 호남지역 첫 WM센터로, 그리고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고객과 소통하는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광주
WM센터



예술의 고장, 예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광주WM센터는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편안함을 준다. 지난 10월 26일 개점한 광주WM센터는 호남지역 첫 WM센터로, 그리고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고객과 소통하는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호남지역의 금융을 책임진다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따뜻한 차가 준비되는 동안 둘러본 광주WM센터의 곳곳에서는 고객맞이를 위한 꼼꼼하고 세심한 손길이 느껴졌다. 방문객이 느끼는 편안함은 자연스레 센터를 향한

신뢰로 이어질 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고객이 IBK기업은행을 오랫동안 동반자로 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치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듯 직원들이 자산관리에 성심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기존 VM업무에서 더 나아가 복합점포에서 증권상품과 결합한 고객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취재 내내 편안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아준 이남현 센터장은 광주WM센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광주WM센터는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힘을 합쳐 초우량 자산 고객에게 차별화된 토탈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과 증권사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점포로서 유능한 PB들의 상담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센터의 자랑거리입니다. 호남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저희 광주WM센터에서 고객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광주WM센터가 위치한 상무지구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입점해 있는 곳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그러나 광주WM센터는 고객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평생설계 서비스를 통해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자신한다. 또한 IBK투자증권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호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고객도 비로소 은행을 동반자로 여길 수 있기에.

최고의 가치는 고객행복

“모든 센터가 마찬가지겠지만, 개점 전부터 개점 이후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광주경영자총협회에서 매주 개최하는 금요조찬회 강연에 센터장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해 인문학부터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소양을 쌓는 일부러 찾잔 하나, 조명 각도 하나까지 꼼꼼히 신경써 고객이 직접 내방했을 때 최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광주WM센터 직원들의 정성어린 노력이 진정성 있게 전해졌다.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점포지만 광주WM센터의 목표는 명확했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나누겠다는 것. 광주지역 작가들의 작품전시를 통해 문화향유 및 소통공간의 장을 센터 내부에 마련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의 유행어 중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희 광주WM센터는 금융상품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고객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심어줄 수 있는, 고객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 제목처럼 광주WM센터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배려해가며 오래 함께 할 동반자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걸음은 행복이라는 목표로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리라 믿는다. WIN CLASS

MINI INTERVIEW



이남현 센터장

고객에게 확실한 행복과 감동을 주어 고객으로부터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인과 기업을 아우르는 영입기반 확충으로 전반적인 금융종합관리의 주춧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연자 부센터장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센터에 방문하시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 팀장

첫 입행할 때의 설레는 마음가짐으로 'I' 보다는 'We'를 위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관리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신은진 대리

호남 최초의 WM센터에 훌륭한 선배, 동료들과 근무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고, 호남 최고의 자산관리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희 대리

매 순간 개점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그 설레임을 잊지 않고 호남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1 등 자산관리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WM센터 파이팅!



DMZ(비무장지대)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부상하는 부동산 시장

올해 4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급속한 정치적 타결로 경제 여건이 바뀌고 있다. 특히 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며 다양한 투자 기회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경제협력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관련주는 수차례 등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 북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세도 심상치 않다. 이런 과정에서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사람들의 의구심을 걷어냈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약속 이야기가 나오고 이에 북·미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평화체제 구축의 신호탄을 쏘았다. 하지만 아직 방심은 이르다. 긍정적인 신호 뒤에도 꾸준한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부상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보자.

꾸준히 부상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한반도 시너지를 강조하는 경제지도는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다.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면 물류에 관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각 지역의 장점을 결합한 여러 가지 경제적 상승효과는 투자보고서 주제의 단골손님이다.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자면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2차 남북정상회담의 많은 내용들이 계승됐다는 점이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와 경제특구 건설 등이다. 이런 것들이 양 정상 간 회동에서 재차 약속된 분위기는 확실히 과거와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또 북한의 적극적인 경제발전의 의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 시그널도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독일 베를린 선언에서 나온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이 담긴 책자 및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북한 경협 확대 시그널이 계속해서 확산되자 사람들의



남북정상회담

투자심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남북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의 확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의선 등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작업이 후속적으로 따라붙어야 한다. 당연히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서 나온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계획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력은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뛰어넘는 거대 경제권 부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핵심은 크게 3대 벨트에서부터 시작된다. 모양을 보면 H형태로 동서 해안가의 큰 축과 남북 접경지역의 횡단 부분이다. 우선 동해권 지역은 환동해 경제벨트로 부



른다. 이 곳의 거점 지역들은 금강산·원산·단천, 청진·나선 등이다. 이들 지역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해 향후 동해안과 러시아(시베리아횡단철도 TSR)를 연결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다. 개발만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에너지·자원개발의 벨트가 완성되고 동해안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과 녹화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도 많은 부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대편에 위치한 서쪽의 환황해 경제벨트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물류의 확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모두 연결해 첨단산업과 소재개발을 함께 꾀하는 것이다. 이 곳은 중국의 접근성을 살려 횡단철도인 TCR의 연결도 점쳐지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접경지역은 DMZ 환경·관광벨트로 불린다. 설악산·금강산·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 벨트로 DMZ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관광개발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이 지역의 발전이야말로 평화의 마침표이자 남북의 빗장이 마지막으로 해체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인근의 부동산 시장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곳이기도 하다. IBK경제연구소는 이들 지역이 개발되면 매년 경제가 1.03%포인트씩 추가 성장하고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 달러가 가능해진다고 예상했다. 또 연평균 14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수혜지역은?

남북 경협 활성화의 수혜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개발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들쭉이는 형국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들도 3대 경제벨트 지역은 부동산시장에서 다소 외면 받았던 지역이라며 경협에

따라 지역가치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마다 부채질하고 있다. 수혜 지역은 우선 접경지역, 경제자유지역, 그리고 서울 북부가 언급되고 있다. 지도로 살펴보자면 경기 북부와 강원도 북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시로는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 고성 등이 언론에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파주는 북한과 직접적인 통행로로 지가의 반영도 빠른 편이다. 파주지역은 남북 관계 개선 외에도 지역 개발의 호재와 묶여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이 곳은 지난 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토지 가격이 상승해 왔다. 파주의 토지 가격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출렁였다. 개성공단의 기동과 남북의 군사대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토지가격이 10% 이상씩 움직이곤 했다. 특히 경기도 일산, 서울 은평구 등 비교적 인근 지역들이 모두 북한의 이슈와 연계돼 움직이면서 부동산 가격도 함께 반영되고 있다. 접근성의 향상도 꾸준한 편인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예정),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연장 계획 등 수도권의 접근성 향상은 북한의 이슈와 논외로 치더라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강원도 북부를 많이 주목한다. 강원도 철원 역시 남북 관계가 개선될 때마다 수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이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많은 관심과 인프라 개선이 이뤄진 점은 사실이다. 북부의 교통접근성도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44.6km) 개통과 더불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서울~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 자동차전용도로(57km)도 호재다. 아울러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중앙 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남북경협이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경제개발이 예상되

는 동·서해안 벨트 내 산업지대와 일부 관광지대도 투자의 매력도가 높다. 남북 간 경협은 한반도의 인적·물적 자원의 꾸준한 이동과 교환을 촉발시키며 이를 위해서는 언급된 지역의 인프라 사업도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전쟁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이 지역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잇따른 한국부동산 진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위기 속의 기회, 그러나 신중한 접근이 우선

남북 관계가 급격히 변하면서 많은 기회도 따르지만 우려의 시선도 많다. 이 기회를 틈타 악성매물을 넘기거나 과장된 가격으

로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업자들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호재들은 정치·외교적 이슈에 민감하고 설령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완성과 수익실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고민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투자시기인 만큼 기본에 충실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역세권과 도로교통의 접근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부의 개발계획이 잡혀있더라도 호재로 언급되는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상권이 조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 이전부터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수익형부동산의 분양이나 투자를 권유한다면 한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수혜 예상 지역으로 언급된 곳 중 경기 북부권과 강원도 등 접경 지역은 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경기 서북부는 이미 개성으로 통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외의 지역들은 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투입돼야 한다. 미래를 기약한다면 주택이나 오피스보다는 토지가 더 적절한 투자 방법이다. 조금 위험도가 낮은 지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경제협력 벨트의 해안가 지역이 거론된다. 송도와 청라 등 인천지역과 평택과 같은 무역 항구 등이다. 이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으며 관광과 공업시설이 균형적으로 개발돼 경기·강원도 북부 지역보다는 리스크가 낮다. 레지던스와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개발이 현재에도 활발하며 많은 방문객들이 교류할 것을 예상한다면 투자의 매력도가 높은 지역들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물류나 철도 시설 인근지역들도 좋은 투자처이다. 현재에도 높은 지가를 보이고 있지만 남북경제 협력이 현실화 된다면 서울역과 용산역을 비롯해 수도권의 각 물류거점들은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된다.

이처럼 각 리스크 별 투자의 방법과 지역을 알아봤지만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부동산 투자에는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미래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 투자자들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WIN CLASS



두 도시의 다른 매력 속으로, 포르투 & 홍콩



포르투와 홍콩은 최근 들어 여러 매스컴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행지다.
 포르투는 가장 포르투갈다운 모습을 간직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반면 홍콩은 세계의 수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혼재된 풍경을 보여주는 곳.
 두 도시의 서로 다른 매력 속으로 떠나보자.



포르투갈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간직한 도시 포르투

도루 강(Douro River) 하구, 대서양과 만나는 곳에 자리한 도시 포르투는 포르투갈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다. 로마인들이 항구(Portus)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이며 출발한 이 도시의 역사는 대항해시대, 위대한 탐험가들이 범선의 닻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크게 번성했다. 대항해 시대가 막을 내리며 도시는 성장을 멈췄고, 지금은 당시의 풍경을 고스란히 박제한 채 당시의 영화를 되새김질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포르투를 두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리스본보다 더 포르투갈 같은 곳이라고 말하곤 한다.

포르투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도루 강 언덕에 자리한 히베이라 지구다. 히베이라는 포르투갈어로 '강변'이라는 뜻이다. 햇살이 퍼지는 강가에는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강 너머에서 날아든 갈매기 울음소리가 귓전에 울려 퍼진다. 건물 위층에 널린 빨래는 강바람에 느긋하게 흔들린다. 아래층은 대부분 노천 카페다. 여행자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달콤한 포트와인을 마시며 포르투의 낭만을 즐긴다. 이곳에 자리한 히베이라 광장은 포르투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으로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비긴어게인2>에서 김윤아와 로이킴이 노래한 곳이기도 하다.

도루 강에는 포르투갈 전통 나룻배가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래 전 포르투에서 영국으로 포트와인을 실어 나르던 배다. 시간만 맞으면 라벨로(Rabelo) 모양 배를 타고 포르투의 운치있는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도루 강 유람 요금은 성인 기준 15유로(한화 약 2만 원).

100년 전쟁에 패배한 영국이 프랑스에서 와인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안으로 선택한 곳이 포르투. 하지만 와인을 실어 가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랜디를 첨가했는데, 이것이 포트와인의 시초다. 알코올 함량은 18~20% 정도이고 브랜디의 향, 견과류의 고소한 향이 난다. 히베이라 지구 건너편이 빌라노바드 가이아 지역인데 이 곳에 샌드맨, 그라함 등 내로라하는 포트와인 와인너리가 모여 있다.

히베이라 지구와 빌라노바드 가이아 지구를 이어주는 다리가 '동루이스 1세 다리'다.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이 다리는 너비 8m, 높이 85m, 길이 180m의 유럽 최대 아치교다. 2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층은 자동차와 사람이, 2층은 사람과 트램이 함께 다닌다. 유람선을 타고 도루강 위에 놓인 6개의 다리(루이스 1세, 마리아 피아, 인판테, 상 주앙, 프레이소, 아라비다)를 빠짐없이 감상하는 것도 흥미롭다.

아치의 양 끝에 교각을 세우고 이층 다리를 놓은 모양이 에펠탑 하부와 닮았다. 구스타프 에펠의 제자 테오필 세이리그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저녁이면 포르투를 찾은 여행자들 전부가 이 다리 위에 몰려든다. 이곳에서 노을을 바라보기 위해서다. 도르강과 강변의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은 유럽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앉아 있노라면 온전히 나만을 위한 여행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 바쁜 현실에서 잠시 떠나와 찾는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 지 새삼 깨닫게 된다.

역사문화지구 중심에 자리한 클레리구스 탑도 시내를 전망하기 좋다. 역사문화지구는 히베이라 광장에서 오르막 길을 따라 가면 닿는다. 언덕을 따라 신고전주의,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각종 양식으로 지은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다. 1996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76m 높이의 클레리구스 탑은 18세기 초 니콜라우 나소니가 설계했다. 이탈리아 투스카니 출신의 니콜라우 나소니는 포르투를 너무 사랑해 포르투의 여러 건물을 지었





Porto

는데, 클레리구스 탑과 성당은 보수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나선형 모양의 계단 240개를 오르면 포르투 시내 뿐만 아니라 도루강까지 이어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포르투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명소가 두 곳 있다. 그 중 한 곳이 렐루 서점(Lello Bookshop)이다. 아르누보 풍의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이 서점은 1869년 프랑스인 에르네르토 샤프롱이 문을 열었다. 1890년 렐루 형제가 서점을 인수했고 1906년 지금의 네오고딕 양식의 흰 석조 건물로 이전해 문을 열고 있다. 천장과 맞닿은 금갈색 서가와 서점 한 가운데 놓인 붉은 계단은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소설 속 마법 학교의 계단으로 묘사한 곳이다. 조앤 롤링은 포르투에서 살았던 시절 이 곳을 드나들며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서점은 이른 아침부터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해리포터 팬들로 붐빈다. 서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 5유로를 내야하는데, 책을 사는 사람보

다 사진만 찍는 데만 열을 올리는 관광객들을 보고 있으면 왜 입장료를 받는지 이해가 간다. 서점에는 생택쥐페리의 <어린왕자> 초판 저자 사인본도 보관 중이다. 세계에 딱 300권만 남아있다. 가격은 1만 8,000유로 선.

또 다른 한곳은 상 벤투 역이다. 포르투 역사문화지구 여행의 시작점인 이 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이다. 역 외부와 내부를 장식하는 아줄레주(채색 타일)의 거대한 푸른 벽화 때문이다. 당대 최고의 포르투갈 화가 조르주 콜라소가 1905년부터 1916년까지 11년간 무려 2만 장의 타일 위에 포르투갈의 역사를 그려 넣었다. 역이 아니라 하나의 미술 전시관 같다. 기차역 내부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맥도날드도 있다. 이름도 '임페리얼 맥도날드'다. 수많은 스테인드글라스와 엄청 큰 상들리에가 내부를 장식하고 있어 과연 '임페리얼'이라는 수식어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전 세계의 풍경이 모인 곳 홍콩

고개를 힘껏 뒤로 젖혀야만 그 높이를 겨우 가늠할 수 있는 마천루, 그 마천루 아래에서 돈을 받고 남에게 저주를 해주는 할머니가 존재하는 곳, 그 곳이 바로 홍콩이라는 도시다. 최근 '밤도깨비 여행'으로 각광받고 있는 홍콩은 3시간만 이동하면 만날 수 있는 이국적인 풍경으로 더욱 그 인기가 솟구치고 있다. 붉은 글씨로 씌어져 있는 한자와 영어 간판이 거리를 어지럽게 밝히고 있는 것도 오직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런 도시에 트램이 굴러다닌다는 것도 낯설다. SBS <미운 우리 새끼>, tvN <짬뽕투이>에서 출연자들이 몸을 실었던 바로 그 트램이다. 현지에서 '딩딩'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트램이 홍콩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건 1904년. 느린 트램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도시를 누비고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지만 그래도 이 트램을 홍콩 사람들이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고개를 가우똥하게 만든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뒤엉킨 홍콩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음식이다. 다양하기로는 세계 최고인 중국 요리에 영국 점령기에 서양요리가 더해졌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후 몰려든 중국 본토의 부유층과 세프들이 홍콩 음식의 다양함을 보탤었다. 음식으로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홍콩이다. 저렴한 길거리 음식점부터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고급 레스토랑까지, 무려 4만여 개의 음식점이 이 작은 도시에 몰려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차찬탕(茶餐廳)이 홍콩의 식문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 차와 함께 토스트, 마카로니 수프, 페이스트리, 중국 풍 국수 등을 곁들여 먹는 홍콩식 아침 식사다. 토스트와 고기라면 같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음식이 한 테이블에 오른다.

차찬탕은 골목마다 들어서 있다. 오전 7시도 안 된 시간이지만 아침을 먹으려는 이들이 줄을 서 있다. 홍콩 사람들 대부분은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다. 워낙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이 워낙 좁아 주방을 들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매식(買食, 음식을 사 먹다)'을

한다. 차찬탱과 함께 홍콩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암차'(飲茶)다. '차를 마시다'는 뜻. 주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덤섬을 먹는 브런치인데 요즘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여는 곳이 많다. 암차가 역시 홍콩의 좁은 거주 공간 때문에 발달했다. 덤섬은 속재료와 요리법이 다양해서 그 종류가 400여 가지가 넘는다. 따라서 가야 할 덤섬 맛집들은 넘치고도 넘친다.

린허루(蓮香樓)는 홍콩의 암차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다. 현지인과 관광객이 뒤섞인 테이블 사이로 직원들이 수레를 끌고 다닌다. 수레마다 파는 덤섬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덤섬은 작고 양중맛지만 여기서 파는 덤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오리발이 든 덤섬도 있다. 덤섬 말고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고기 냄비 밥, 볶음국수, 송화단을 넣은 죽, 유채나물 볶음, 포자만두, 폭신한 식감을 자랑하는 홍콩식 카스텔라 등등 없는 게 없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수레를 멈춘 후 내려 먹고 계산서에 표시만 하면 된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주전자 채로 나오는 보이차와 함께 먹으면 더 좋다.

홍콩 하면 많은 이들이 '홍콩영화'를 떠올리리라. 한 세대를 풍미했던 배우 주윤발과 양조위는 지금도 여전히 아시아의 우상이다.

거리를 걷다 운이 좋으면 이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다. 카오룽 시티에 자리한 식당 팀초이키(Tim Choi Kee)는 주윤발의 단골 죽집이다. 1948년 처음 문을 열었고 지금은 3대째 운영하고 있다. 콘지와 완탕 등 홍콩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을 판매한다. 주윤발이 즐겨 먹는 요리는 '땡짜이 콘지'와 '야오티우 장편'이다. 땡짜이 콘지는 '어부들의 죽'이라는 별명이 붙은 요리인데, 돼지껍데기와 오징어, 쇠고기, 땅콩 등을 넣어 죽으로 끓인다. 팀초이키의 콘지는 다른 식당들과 달리 새벽 3시부터 6시 반까지 폭 끓여내기 때문에 식감이 부드럽고 풍미가 진하다.

카우키(九記)라는 국수집은 양조위의 단골이다. 다이파이동(노점 식당)으로 시작해 지금은 80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지인과 관광객이 뒤섞여 좁은 실내를 가득 채우는 집인데 합석은 기본이다. 소대표 메뉴는 소힘줄과 도가니를 넣은 수프, 그리고 고기 국수다. 고기를 듬뿍 넣은 국물에 말아낸 독특한 식감의 국수를 한 번 맛보면, 관광객과 현지인이 뒤섞인 긴 줄이 금방 이해가 된다. 국적을 불문하고 맛있는 음식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니 말이다. WIN CLASS



황혼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라



이제는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서 노년기에 이혼을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보통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여 독립시키고, 부부가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하게 되는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대체로 혼인기간이 30여 년 이상이면 황혼이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이혼이 개인의 불행이나 흉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더 늦기 전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내 인생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황혼이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라고 불릴 시기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현명하게 대비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황혼이혼의 사례와 쟁점

황혼이혼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이다.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은 대부분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양육비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황혼이혼 당사자들은 30여 년 이상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 등을 견뎌왔기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흩어지거나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의 싸움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당시의 정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식구들끼리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녀들의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자녀들이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다. 황혼이혼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적절하게 분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함께 재산을 일군 공로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도 생활을 유지할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어떤 이혼이든 재산분할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지만, 황혼이혼 당사자는 대개 은퇴를 한 이후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동안 모은 재산을 잘 분배하는 것이 다른 연령대의 이혼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연금분할 문제이다.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에 도달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 법마다 지급요건이 조금씩 달라 이 부분은 이혼 전 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은퇴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형태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연금 역시 혼인기간 중 형성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금 분할 문제 때문에 이혼 자체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연금 분할 문제는 황혼이혼의 뜨거운 감자다. 분할 연금은 이혼 후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상속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혼 당사자의 연령이 높다 보니, 자녀들에 대한 상속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노부부의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도왔던 적이 있다. 반드시 당사자의 사망이 아니라도, 장성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 상속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 재미있는 것은 결국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고 생각해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통 크게 재산을 양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외도를 하



며 아내의 속을 썩이던 남편이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자기 재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을 흔쾌히 아내에게 명의이전해주는 사례도 본 적이 있다. 단, 그 부동산을 팔지 않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 때 남편은 “아내를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며 가장 큰 재산을 흔쾌히 넘겨주었다. 이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결혼생활을 해 온 황혼이혼 사례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다.

황혼이혼 그 이후

황혼이혼이 마무리 되었다면, 이혼 후에 해야 할 일들이 다른 이혼 사건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혼이 성립된 지 30일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하는 일이다. 분할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하여야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빠르게 임의지급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황혼이혼 이후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배우자와의 별거라고 한다. 함께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한 이불을 덮고 자던 긴 세월이 있기 때문인지, 막상 이혼을 하고 별거를 시작해 보니 뭔가 허전하기도 하다는 의뢰인의 하소연을 들은 적도 있었다. 반면 지긋지긋했던 결혼생활을 청산하니 시원하다는 반응도 접한 적이 있다. 어느 쪽이든 이혼 후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혼 후의 생활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이혼 후에도 자녀들의 경조사 때문에 전 배우자를 만날 일이 상당히 있어 서로 너무 깊은 악 감정을 품고 이혼하지는 않기를 권유하곤 한다. 해묵은 감정이 있다면 이혼과 동시에 털어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황혼이혼의 또 다른 대안, 줄혼에 대하여

최근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줄혼’이다. 최근 한 원로 탤런트의 줄혼 고백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줄혼’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졌다.

‘줄혼’이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형태를 말

한다. 이혼과 달리 별거를 하지 않는 상태로, 서로 간섭만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필자는 가끔 줄혼에 대한 상담 문의도 받는데, 이혼사건과 같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줄혼은 엄연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혼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줄혼의 법률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와 협의하여 명확한 합의문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동거 여부부터 생활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재산 문제에 대해 의논해 보고 문서로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법률상의 문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부부 사이가 불화가 매우 악화된 상태인지, 아니면 협의가 될 만큼 원만한 사이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재산 약정은 달리 할 수 있다.

실제 사례 중 남편의 가출로 ‘강제적 줄혼’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내는 생활비를 지급해 달라는 부양료 청구를 해야만 했다. 줄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혼인 중의 경제적, 정신적 의무에 대하여 느슨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줄혼을 염두에 둔다면 사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줄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대비해 둘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줄혼 시 재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경우에도 황혼이혼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 문제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줄혼을 하면서 재산도 분할하는 경우라면, 결국 이혼과 달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당사자의 니즈에 따라 자녀에게 바로 증여할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할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이 첫 번째 독립이었다면, ‘황혼이혼’은 두 번째 독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느슨한 형태의 결혼을 유지하는 줄혼도 황혼이혼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느 경우이든 배우자와 공유했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비하기를 권한다. 현명한 준비를 통해 당신의 두 번째 독립이 행복한 홀로서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WIN CLASS



글.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막연한 성공? 손에 잡히는 행복!

최근 들어 '작아도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워라밸' 같은 신조어가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막연한 성공에 대한 기대가 아닌 손에 잡히는 행복. 무엇이 이런 트렌드를 추구하게 만든 걸까.

<슬기로운 감빵생활>과 <나의 아저씨>, 달라진 주인공의 욕망

드라마 속 주인공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대중들이 가진 욕망을 대변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2003년 방영되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던 <대장금> 같은 성장드라마는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한 차례 꺾인 바 있지만, 그래도 2000년대 초까지도 그 기대감은 여전한다는 걸 이 드라마는 보여준다. 수랏간 상궁으로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장금이 가 갖은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해 결국은 임금님을 보좌하는 상궁이자 의녀의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에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건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드라마는 여전히 그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영됐던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라는 드라마가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던 건 그래서다. 이 드라마는 특이하게도 프로야구 선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선 제혁(박해수)이라는 인물이 사건을 겪은 뒤 감방이라는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그 지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심지어 감방에서 왼쪽 어깨를 다쳐 야구선수로서의 사망선고까지 겪게 되는 주인공이지만, 이 인물은 차근차근 그 감방생활에 적응해간다. 이제 굉장한 성공에 대한 목표는 사라졌지만, 그는 나름대로 이 감방생활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결국 이 드라마가 하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감방' 생활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저마다의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엄청난 성공이나 성장을 꿈꾸지 않고 오히려 더 이상의 불행이 없는 '편안한 보통'이 주는 행복을 찾는 것.

대중들은 이 현실적인 추구에 적극 공감했다.

그 소소하지만 보통의 '편안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올 3월부터 5월까지 방영됐던 <나의 아저씨>에서도 그대로 그려진다. "편안함에 이르렀는가?"하고 마지막 회에 중년의 남자주인공 박동훈(이선균)이 청춘의 여자주인공 이지안(이지은)에게 묻는 대목은 이 드라마가 다룬 과정들이 성장이 아닌 '편안한 행복'에 다다른 과정이었다는 걸 말해준다. 실제로 이 두 인물은 지독한 현실의 나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박동훈은 아내의 외도를 겪었고 회사 내에서 퇴출과 승진 사이에 벌어진 정치싸움에 휘말렸다. 이지안은 빚쟁이에 몰리고 부양해야 할 할머니까지 있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생존하려 안간힘을 썼다. 그 과정들을 거치고 드디어 도달한 편안함. 그건 굉장한 위치의 성공은 아니지만 그들이 꿈꾸던 확실한 행복이 아닐 수 없었다.

'소확행'은 어쩌서 지금의 가치로 자리 잡았을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수필집 <망겔한스섬의 오후>에서 사용해 유명해진 '소확행'이라는 신조어는 올해의 트렌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문화 전반에서 등장했다. 그 단어가 촉발시킨 면이 있지만 사실 그 트렌드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소소한 행복'에 대한 추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무래도 일상의 가치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트렌드 변화가 아닐까 싶다.

나영석 PD가 과거 KBS에서 만들었던 <1박 2일>과 최근 tvN에서 만든 <삼시세끼>, <숲 속의 작은 집> 같은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그 가치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1박 2일>은 성장과 성공의 판타지를 그 가치로 보여주던 리얼 버라이어

티 시절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고, 끊임없이 미션을 수행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보상이 돌아오는 이 프로그램이 추구한 가치는 '성공'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나영석 PD가 <삼시세끼>를 통해 담으려 한 건 미션 없이 추구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것이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공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행복. 이로서 '무한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인물은 시대 저 편으로 물러나고, 대신 그 자리에 소소히 밥 한 끼를 챙겨먹어도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는' 인물이 서게 된다.

'소확행'이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하게 된 건, 성장이나 성공에 대한 노력들이 그만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네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사회에서 행복은 사회적 성취로 추구될 수 없다. 대신 대중들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사회생활과 사생활을 분리하고, 그 힘겨운 사회생활을 견디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터전 속에서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려 하는 것. '소확행'은 행복을 더 이상 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현실이 만들어낸 대안인 셈이다.

일터가 중심이 아닌, 일상과의 균형, 워라벨

'소확행'이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일터는 더 이상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사실 우리에게 일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건 개발주의 시대의 성공 판타지가 만든 결과들이다. 성공과 생존이 최고의 가치로 지목되던 당대에 일을 한다는 건 모든 다른 것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IMF에 의해 일과 성공에 대한 판타지가 깨져버리면서 이제 대중들은 일 바깥에 소외되어있던 일상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이른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소확행'과 짝을 이뤄 지금의 삶의 트렌드가 된 건 그래서다.

'워라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대중문화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건 '공간'의 변화다. 즉 도시를 중심으로 다뤄지던 이야기들이 도시를 떠나 자연이나 시골을 찾아가는 건, 다분히 '일'로 상징되는 도시의 공간에서 살다보니 잃고 있었던 삶의 일상들을 자연이나 시골에서 되찾겠다는 욕망 때문이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도시생활에 지쳐 고향집으로 내려온 혜원(김태리)이 그 곳에서 살아가며 삶의 활력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낸 건 그래서다. 마치 <삼시세끼>의 영화판을 보는 것만 같은 이 영화는 그리 특별한 사건들이 다뤄지지는 않는다. 고향 친구인 재하(류준열), 은숙(진기주)를 만나 함께 한 끼 밥을 해먹거나 술을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사건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건 혜원이 철마다 그 곳에서 나는 식재료들을 가져다 해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다. 봄이면 지천으로 자라난 썩을 캐다 된장국을 끓이고, 여름이면 콩을 갈아 콩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가을이면 감을 매달아 곳감을 만들고, 겨울이면 뜨끈한 수제비와 배추전을 해먹는다. 한 편의 먹방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만,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채워주는 건 공복의 포만감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포만감이다. 도시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자연이 일부였다는 자각이 그 자연이 주는 음식을 통해 되살아난다.

알다시피 개발시대에 한창 도시화가 이뤄지고, 저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모여 들었던 건 결국 '일' 때문이었다. 그렇게 40여 년이 지난 후 우리는 이제 일이 아닌 실제 삶(몸으로 부대끼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을 그리워하게 됐다. 삶의 중심축이 일터로 기울어있던 것을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되돌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본래 있었던 곳이 자연과 더불어 있던 시골이자 고향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다. 굳이 시골로 가지 않더라도 일 바깥으로 나와 자신의 일상을 마주하며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일. 그것이 '워라벨'이 아닌가.

굳이 애쓸 필요 있나, 손에 잡히는 행복 속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게 진리라고 믿었어요. 10분만 더 오르



면 정상이라고 해서 참고 올랐는데, 40년간 산만 오르는 느낌이다 라고요. 억울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를 쓴 하완 작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책을 쓴 이유를 그렇게 밝힌 바 있다. 사회가 강박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마치 도태되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가가 결심한 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 책이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건 그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을 잘 말해주기 때문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그 명제는 이제 현실에서 깨진 지 오래다. 태생이 미래를 결정하기도 하고, 스펙이 삶의 많은 것들을 좌우한다. 그것이 우리네 현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다. 그러니 그 시스템 안에서 태생부터 갖지 못한

청춘이 노력해서 성공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노력 자체가 무익한 건 아니지만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다. 대신 이들이 세우는 건 저들만의 새로운 시스템이다. 사회가 쥐어주는 시스템은 바꿀 수 없지만 나만의 행복의 시스템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성공만큼 행복이 소중하고, 일만큼 나의 일상이 소중하다. 그러니 작은 행복을 일상에서 추구하는 소확행과 워라벨은 지금의 대중들의 ‘슬기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비록 현실은 ‘감빵생활’처럼 힘들지라도, 누구나 똑같은 ‘삼시세끼’ 안에서 저마다의 ‘리틀 포레스트’를 추구한다면 이 또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 WIN CLASS

알아두면 쓸모있는 클래식 공연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여러 공연장은
다양한 송년 공연을 준비하며 손님맞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의 마지막을 격조있게 마무리해 줄
다채로운 공연 소식을 만나보자.



한 해를 보낼 때면 클래식 공연장도 바빠진다. ‘송년용 레퍼토리’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 클래식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진 곡들이기도 하다. 관현악곡으로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성악으로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과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발레로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곡들이 송년용으로 인기라는 점은 클래식이 공연되는 세계 어디에서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래식이 많이 공연되는 곳은 서울 예술의 전당과 롯데콘서트홀이다. 12월 공연의 면면을 살펴보니 30년 전통의 예술의 전당은 전형적인 ‘송년용 레퍼토리’가 풍성하고, 강력한 추격자인 신생 롯데콘서트홀은 참신한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전통의 강호, 송년 콘서트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1824)은 마지막 4악장에 대규모 합창이 들어간 곡이다. 합창만이 아니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독창자 4명이 더 필요하다. 교향곡 역사상 성악이 들어간 최초의 예다. 그 이유는 독일의 대문호 프리드리히 실러가 쓴 ‘환희의 송가’를 마지막 4악장 가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전체 70분이 넘는 대곡으로, 그중 4악장에만 25분 이상이 소요된다. 물론 3악장까지만 해도 긴 곡이다. 이 곡이 송년음악회의 인기곡이 된 것은 1919년 독일 라이프치히 노동자 교향연합의

평화축제가 그 시작점이다. 당시 무려 3천명의 합창단이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콘서트에서 새해맞이를 위해 노래했는데, 12월 31일 밤 11시에 합창 교향곡을 시작하여 정확히 자정이 되었을 때 “만백성이여, 서로 포옹하라” 부분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 감격의 순간이 여기저기서 연말이면 재현되는 셈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에는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5개국 오케스트라의 연합 악단으로 베를린에서 이 곡을 연주했고, 2001년에는 합창 교향곡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환희의 송가’ 부분은 유럽연합(EU)의 찬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양대 오케스트라인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이 합창 교향곡을 연주하는 기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시향은 12월 21~22일, KBS교향악단은 12월 28일이다. 서울시향은 수석객원지휘자 티에리 피셔, KBS교향악단은 음악감독 요엘 레비가 지휘한다.

오페라로는 자코모 푸치니의 <라보엠>(1896)과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1874)가 송년용으로 인기 높다. <라보엠>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랑을 시작한 가난한 두 남녀의 이야기다. 폐병에 걸린 미미를 살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로돌포는 겨울을 간신히 함께 지내고 그녀와 아름답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봄이 온 다음에 죽음을 목전에 둔 미미를 다시 만나게 된다.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힘들었던 옛 청춘’을 떠올리게 만드는 슬픈 오페라다. 반면 <박쥐>는 오페라의 분파인 가벼운 ‘오페



레타' 장르로서 한없이 흥겹고 웃긴다. 바람둥이 귀족 아이젠슈타인이 옛날 자기가 골탕 먹었던 친구 팔케 박사의 악의 없는 복수극에 넘어가 아내와 지인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를 잘 짜여진 구도와 유쾌한 음악 속에 담아냈다. <라보엠>은 국립오페라단이 연말 무대에 선보이는 단골 레퍼토리로, 올해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다.

공연 장소는 콘서트홀이 아니라 오페라극장인데, 두 공연장의 차이는 극장 안의 무대인 '프로시니엄'의 유무에 있다. 콘서트홀은 프로시니엄 없이 무대가 객석으로부터 완전히 개방된 느낌이고, 오페라하우스는 반주를 위한 오케스트라 피트를 사이에 두고 객석에서 무대 쪽을 마치 초대형 TV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무대 위에서 드라마가 벌어지는 오페라와 발레, 뮤지컬은 오페라극장에서, 드라마가 없는 공연은 콘서트홀에서 한다. 한편 <박쥐>는 한국예술종합학교(KNUA) 오페라로도 만날 수 있다. 12월 6~7일 예술의 전당 내의 또 다른 극장인 CJ토월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 극장은 오페라극장 안에 있는 아담한 중규모의 극장으로, 역시 프로시니엄 무대를 갖고 있다. 학교 제작 오페라여서 연출과 무대, 의상에 많은 돈을 들일 수 없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의 각종 콩쿠르를 석권하고 있는 좋은 성악가들의 산실로 유명한 만큼 전문 성악가에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한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1742)는 영국에서 영어로 작곡된 곡으로,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인기 높다. 전체 3부 구성인데, 사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구세주의 탄생을

그린 것은 1부뿐이고, 2부와 3부는 고난과 부활, 승천, 복음 전파, 죽음을 이긴 승리를 노래한다. 그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은 2부의 마지막 곡이다. 당시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이 합창이 연주될 때 일어섰다는 일화가 있어서 청중들도 일어서는 관례가 생겼지만 우리 관객도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윤의중이 지휘하는 국립합창단의 공연이 12월 8일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3일 후인 11일에는 박치용이 이끄는 서울모테트합창단이 한 번 더 연주한다. 국립합창단이야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체지만 서울모테트도 민간합창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단체여서 늘 만만치 않은 실력을 발휘한다.

표트르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발레 <호두까기 인형>(1892)은 러시아 황실극장을 위해 만든 것으로, 초연 당시 왕족과 귀족 취향이 아닌 가족용 크리스마스 공연물처럼 여겨져 발췌된 모음곡만 살아남고 발레로는 거의 잊혀질 뻔 했다. 그런데 러시아 황실 발레 출신으로 미국에 건너가 '뉴욕 시티 발레단'을 운영하던 조지 발란신이 1954년에 역발상을 해낸다. 이에 발레학교 어린이들을 1막부터 조역으로 무대에 대거 출연시키면 어린이 관객들이 더 좋아할 것이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까지 공연장에 올 것이란 생각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박을 쳤다. 뉴욕 시티 발레의 어려운 재정을 만회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세계 유수의 발레단들이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공연하는 메인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국립발레단 공연은 12월 15~25일까지(17일은 공연 없음)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열흘간 14회나 공연되지만 올해도 매진사태일 것이다. 한편 국립발레단과 쌍벽을 이



루는 유니버설발레의 <호두까기 인형>도 있는데, 자체극장인 광진구 유니버설아트센터 무대에 올라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26일은 공연 없음) 19회에 걸쳐 공연할 예정이다.

신선한 기획으로 눈길을 끌다

잠실의 롯데월드몰 최상층에 자리 잡은 롯데콘서트홀은 2016년 여름에 개관한 새 공연장이다. 음향이 좋은 이른바 ‘빈야드 스타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일본의 토요타 야스히사가 홀 내부를 설계했다. 공연장이 하나뿐이고, 아직 덜 알려진 탓에 예술의 전당만큼 관객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참신한 기획으로 객석을 채우려는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연말 연초의 일정을 보면 우선 12월 19일의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눈에 띈다. 브레멘에 위치한 군소악단이었지만 에스토니아 출신의 파보 예르비가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일취월장하여 아주 견고한 합주력을 자랑하는 일급 악단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몇 번 내한했지만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높은 미국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이 협연자로 나서는 점도 관심사인데, 그는 12월 21일에 별도의 단독 리사이틀도 갖는다. 12월 26일에는 예민한 감수성의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슈베르티아데>가 있다. ‘슈베르티아데’란 원래 슈베르트의 작품들을 가까운 지인들끼리 즐기는 살롱풍 음악회를 이르는 말이다. 타이틀과 달리 단독 리사이틀이 아니라 임동혁의 주도하에 어린 유망주 김두민(피아노), 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라), 스테판 피 제키브(바이올린), 문태국(첼로), 성민제(콘트라베이스) 등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젊은 스타급 연주자들이 망라되었다.

12월 30일과 31일에 두 번 열리는 롯데콘서트홀의 제야음악회에도 주목하고 싶다. 합창 교향곡 대신 신동일(오르간), 클라라 주미 강(바이올린), 캐슬린 김(소프라노), 정호윤(테너)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양한 기악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으로 송년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해를 넘겨 1월 21일에는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 리사이틀>이 단연 관심을 끈다. 미국 출신인 조이스 디도나토는 체칠리아 바르톨리를 잇는 현역 최고의 메조소프라노로서 세계적 오페라 전문지로부터 ‘오페라의 여왕’이라는 최상의 격찬을 받은 성악계의 슈퍼스타다. 로시니를 비롯한 19세기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로도 유명하지만 이번 첫 내한 공연에서는 헨델 중심의 바로크 레퍼토리를 탁월한 콜로라투라 기교는 물론 깊은 울림의 표현력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클래식 공연장에 갈 때는 과거만큼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캐주얼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휴대폰 울림은 물론 그 빛도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사탕 껍질을 까는 등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다른 관객에게 크게 폐를 끼치는 행위다. 악장 사이의 박수도 원칙적으로 금물이다. 하지만 오페라나 발레에서 노래나 춤이 중지부를 갖는 경우에는 박수를 쳐서 가수와 무용수를 격려해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농담이지만 정말 유효적절한 팁을 전하고 싶다. “박수치는 적절한 타이밍은, 다른 관객의 절반이 박수치는 것을 확인한 다음!” WIN CLASS

A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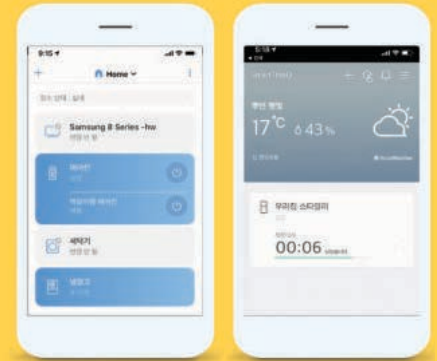
스마트한 시니어를 위한 앱 |App| 길라잡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개인 필수품이 되었고 컴퓨터보다 더 자주, 많이, 오래 사용하게 되었다. 심지어 컴퓨터로는 할 수 없는 택시호출, 내비게이션, 카메라 촬영, 오프라인 매장 결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능이 아무리 훌륭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삶의 질을 높여줄 12가지 앱을 소개한다.



카카오맵

내가 있는 위치와 주변의 주요 건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뿐 아니라 은행, 관공서, 편의점, 화장실 등의 다양한 상가 위치와 정보를 확인할 때 유용하다. 대중교통 정보와 특정 지역까지 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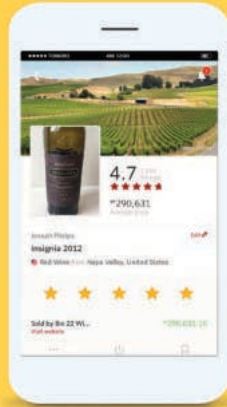
스마트싱즈(삼성전자) 스마트싱큐(LG전자)

가전 기기의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보여준다. 에어콘을 켜고 끌 수 있으며, 세탁기의 세탁 진척도, TV의 조작 등을 앱으로 할 수 있다. 알람 정보(세탁이 종료된 후, 냉장고 문이 열렸을 경우 등) 확인은 물론이다.



다이닝코드

맛집 검색 서비스로 인터넷에 등록된 리뷰와 사람들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좀 더 정확하고 신뢰가 높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사람들이 올린 사진으로 가게의 분위기와 좌석 배치, 음식 사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VIVINO

와인 검색 앱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와인을 촬영하면 해당 와인의 평균 가격과 평점 상세한 와인명과 종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촬영한 모든 와인은 따로 보관되기 때문에 그간 마셨던 모든 와인들을 쉽게 분류 가능하다.

팟빵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라디오 앱으로 현재 방송 중인 라디오 방송과 개인 방송은 물론 이미 지난 방송까지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카테고리 특정 주제에 대한 방송만 들을 수도 있다.



CGV

CGV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 목록 안내와 예매를 돕는 앱이다. 물론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영화관 앱들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휴대폰 결제부터 신용카드, 간편결제, 영화관람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매방법을 지원하며 자리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



파파고

실시간 번역기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다국어 언어를 지원한다. 문자 번역부터 음성 통역, 심지어는 카메라로 바로 찍어 그 자리에서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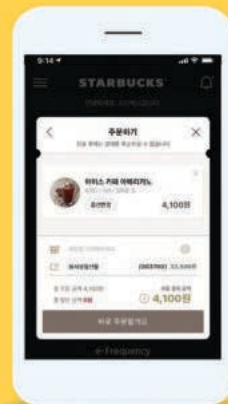
타다

6명이 탑승 가능한 11인승 RV로 운영되는 리무진 택시 서비스다. 일반 택시에 비해 20% 이상 가격은 비싸지만 4명 이상의 인원이 보다 편안하게 이동하고자 할 때 편리하다. 손님이나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셔야 할 때 유용한 앱이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앱으로 최근에는 카드 연동으로 자동 결제를 지원해 목적지에 도착해서 신용카드나 T머니를 이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만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다. 리무진 택시가 좀 더 편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블랙' 서비스도 제공된다.



스타벅스

미리 앱에서 충전을 해두면 주문하고자 하는 메뉴를 스마트폰에서 선택하고 결제하는 '사이렌오더' 기능이 특히 편리해 이미 젊은 층에게 각광받고 있다. 방문포장까지 가능하니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것 역시 큰 장점.



토스

출금계좌를 등록하고 보낼 금액과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따로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간편하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다. 일 200만원의 이체 한도가 있다.

이외에도 업무를 보다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들도 있다. 명함관리 앱 '리멤버', 인쇄된 내용을 찍으면 핸드폰에서 편집할 수 있는 '오피스렌즈' 등이 그것이다. 모바일 기기에 능숙한 시니어 세대가 점점 늘어나면서 앱 역시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연, '좋은 앱이 열 비서 못지 않다'는 시대다. WIN CLASS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전시·공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문화 소식을 만나봅니다.



세계 최초로 만나는 컨버전스 기획전

르누아르 : 여인의 향기展

눈부신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묘사, 특히 여성이 발산하는 매력과 특유의 부드러움을 능숙하게 묘사한 19세기의 위대한 예술가 르누아르의 작품들을 미디어 작품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와 모션 그래픽 기술을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체험형 예술 장르인 '컨버전스 아트'로 르누아르 작품을 재해석했다. 르누아르가 활약한 19세기 말 파리와 남프랑스 등 르누아르가 꿈꿨던 여유로운 분위기의 풍경화와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감각적인 작품들을 전시 공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일시** ~2019년 4월 28일(일)

📍 **장소** 본다빈치뮤지엄 갤러리아포레점

💰 **관람료** 성인 1만5천원 / 청소년 1만원 / 어린이 8천원

☎ **문의** 070-8806-0329

전시



묵적(墨跡)으로 만나보는 옛 사람의 향기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 : 서여기인展

옛 사람들은 서예를 글씨를 쓰는 사람의 내면과 정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정신수양의 결과로,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고 간주했다. 학, 시, 문장, 그림, 글씨의 5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효종이 중국 선양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시 '가을 생각'을 비롯해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인 전남 강진에서 청산도에 사는 노인 정재운을 위해 기록한 서첩, 원교 이광사의 해행전예첩, 다산 정약용의 친필 서첩, 추사 김정희의 발문, 수운 유덕장의 묵죽 등 화정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서예 대표작들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 **일시** ~2019년 2월 24일(일)

📍 **장소** 화정박물관

💰 **관람료** 성인 1만원 / 청소년 7천원

☎ **문의** 02-2075-0114

공연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선사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2018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콘서트

프랑스를 대표하는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평화와 사랑을 테마로 2018년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장식한다. '크리스마스의 천사'로 불리는 이들은 올해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환상적인 레퍼토리로 가족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콘서트를 선사할 계획이다. 모차르트의 자장가,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등의 클래식 명곡, 넬라 판타지아 등의 현대명곡 뿐만 아니라 내한 공연 때마다 한국 팬들을 열광시키는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의 대표곡인 곡 '고양이 이중창'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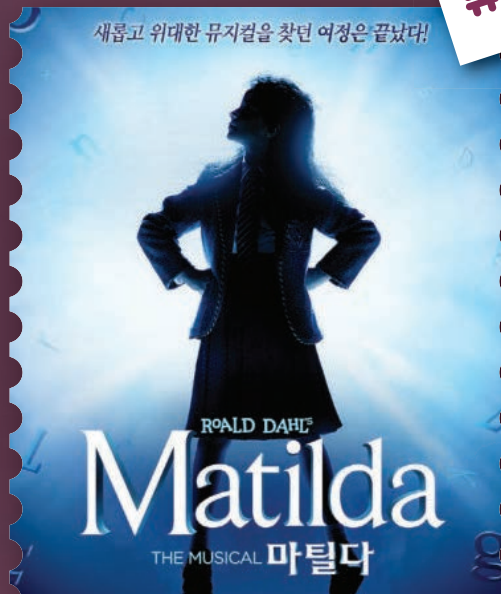
📅 **일시** 12월 16일(일), 12월 19일(수)~20일(목)

📍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관람료**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문의** 02-597-9870

뮤지컬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동화 마틸다

뮤지컬 <마틸다>는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친숙한 영국 동화작가 로알드 달의 소설이 원작이다. 96년 동명의 영화로, 또 2010년 영국 웨스트엔드 무대에 첫 선을 보인 뒤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받은 <마틸다>. 아시아 최초이자 비영어권 최초로 한국에서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서는 극장에 들어서마자 시선을 단번에 빼앗는 모자이크 형태의 무대, 마틸다의 온갖 기발하고 동화적인 상상력을 구현해내는 특수효과와 조명, 신나는 넘버와 화려한 군무 등으로 남녀노소 모두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할 예정이다.

📅 **일시** ~2019년 2월 10일(일)

📍 **장소** LG아트센터

🎫 **관람료** VIP석 14만원 / OP석 13만원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문의** 02-577-1987

IBK기업은행 WM사업부가 추천하는 이달의 추천 펀드

(2018년 11월 기준)



주식시장

국내증시 전망

- 지난달 국내증시의 하락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지수의 PER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7.5배까지 하락하여 증시의 가격 매력력이 높아진 상황
- (단기전망) 저평가된 국내증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무역분쟁 타결여부, 미국 중간선거와 금리인상 같은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시장하락 위험 여전히 높음
- (장기전망) 추가급락으로 코스피지수의 PER지표가 9배 이하로 하락한 시점이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최근 급락은 주식형펀드 비중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

해외증시 전망

- 유가 강세로 원유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 브라질증시의 강세가 예상됨. 중국은 경제지표의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무역분쟁 타결, 경제지표 반등이 가시화 될 때까지 비중축소 의견
- 미국증시는 대형 IT기업의 내년 실적 우려, 중간선거, 중국과의 무역분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답보상태 전망



채권시장

국내 채권시장 전망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해 연 2회 이상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국내 채권형펀드의 수익률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해외 채권시장 전망

- 미국 연준이 올해 1회, 내년 상반기 2회의 금리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채 10년 금리는 3%를 돌파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채권관련 상품의 수익률은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듯

투자 성향	공격투자형
위험 등급	2등급
✓ 미래에셋 미국 배당프리미엄 ✓ 삼성일본인덱스H	

투자 성향	공격투자형
위험 등급	2등급
✓ KB스타유로인덱스 ✓ IBK 코스닥150인덱스	

투자 성향	적극투자형
위험 등급	3등급
✓ 유리글로벌거래소 ✓ IBK 코스피200인덱스 ✓ KB중소형주포커스 ✓ 마이다스신성장 기업포커스	
	11월 신규
	11월 추천

투자 성향	위험중립형
위험 등급	4등급
✓ 삼성배당주장기	

투자 성향	안정추구형
위험 등급	5등급
✓ 동NH-AMUNDI ALLSET모아모아 15 ✓ 교보약사Tomorrow 장기우량K-1 ✓ 칸서스트튼단기채 ✓ 동양단기채 ✓ 한국투자e단기채	
	11월 추천

투자 성향	안정형
위험 등급	6등급
✓ 유진 챔피언단기채	



ORODT GOLD BAR

골드바 1g 증정 이벤트

1kg + 1g

1kg 구매시마다 1g을 더 드립니다



99.99% Fine Gold의 순도의
한국조폐공사 오롯 골드바

+



- ▶ 행사 기간 2018.11.5. - 2018.12.31.
- ▶ 제공 대상 행사기간 내 오롯 골드바 1kg 구입하는 고객 (1회주문기준, 합산불가)
- ▶ 배송 방법 1kg 골드바 상품판매시마다 골드바와 함께 판매지점으로 배송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 2018-4081호(2018.08.31) 계시기한 : 2019.08.30 출금번호 : EP20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